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3월 5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사회재난과	담당자	• 시설물재난관리팀장 • 담당자	김상규 ☎440-1851 서원형 ☎440-1854	
	소상공인 정책과	담당자	• 전통시장지원팀장 • 담당자	박태희 ☎440-4221 이근왕 ☎440-422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현대시장 화재 관련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

- 총 205개 점포 중 55개 점포에서 피해 발생, 사고 수습에 만전 -
- 유 시장, 긴급 상황점검회의 열고, 현장 찾아 피해상황 점검·상인 위로 -
- 재해구호기금, 시설현대화 우선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검토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동구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인천소방본부,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밤 23시 38분경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점포 총 205개 가운데 현재까지 55개 점포가 피해를 봤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1960년 동구 송림동 50-103 일원에 개설된 현대시장은 상설시장으로서 현재 205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피해를 본 점포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가입 여부는 현재 파악 중이다.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해 시는 3월 5일 9시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화재발생상황 보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유정복 시장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9시 45분경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시와 동구에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 재해구호기금·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 등 감면 또는 유예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에 대한 신속한 보험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애써준 소방·경찰 관계자와 시장 상인, 그리고 화재진압에 동참해 준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시설물과 물품 등의 피해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 생계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화재 잔해물을 빨리 처리해 임시 영업공간 마련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5일 시청 집무실에서 동구 현대시장 화재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5일 동구 현대시장에서 한창섭 안전행정부차관과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그밖에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